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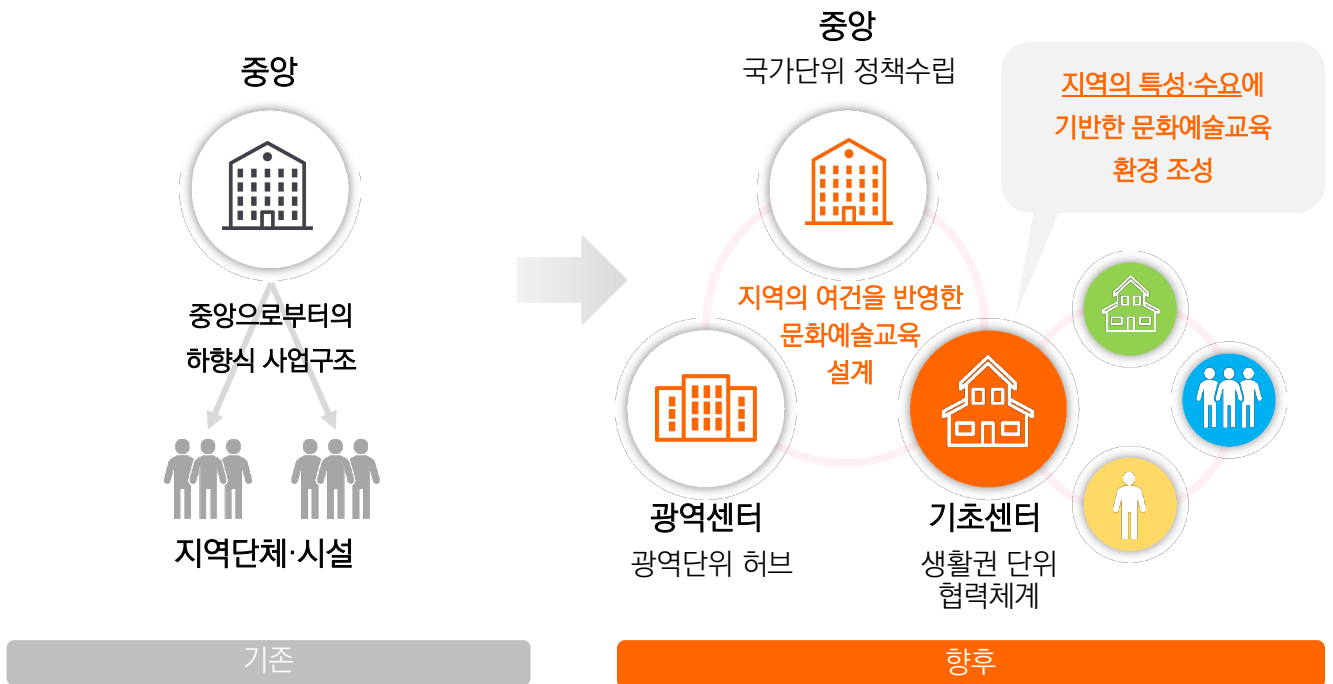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계획수립 가이드

01. 사업추진배경

- ▶ 지역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지역 스스로 설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풀뿌리’ 문화예술교육 협력거점 조성으로 지역 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연차별 추진계획



2020

기초 단위 문화예술
교육 거점 구축 지원
(국비)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및
로드맵 수립



2021~2022

기초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시범운영
(국비·지방비)

지역 문화예술교육 보완,
관리, 단계별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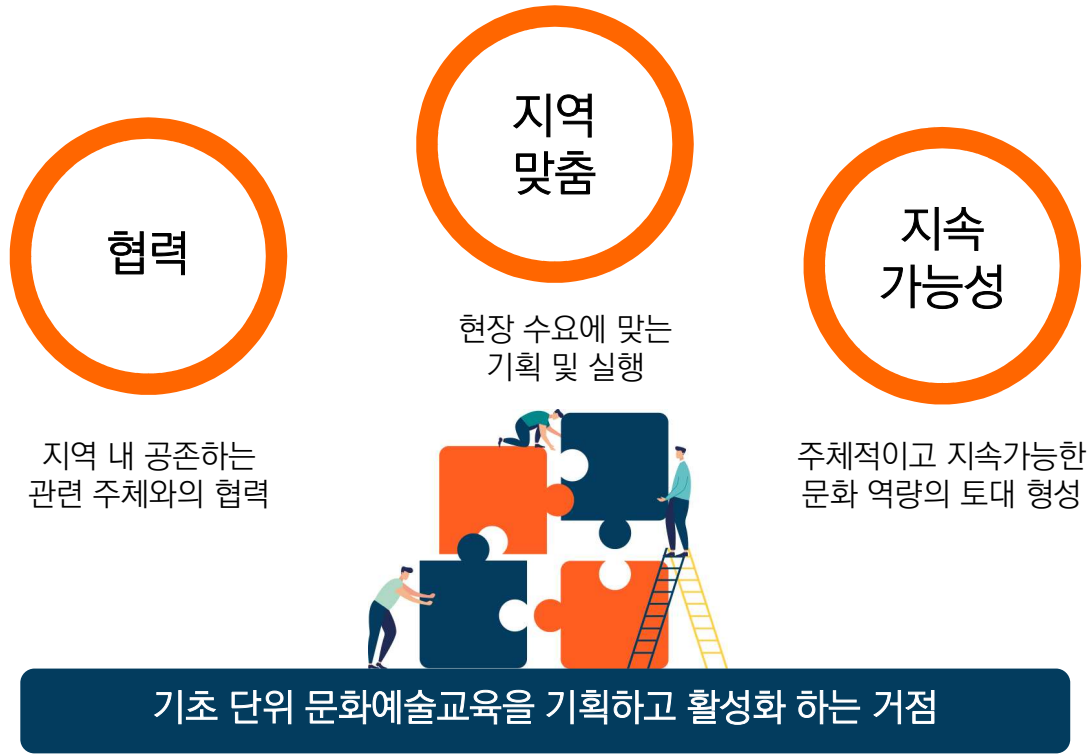
2023~

기초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정
(국비·지방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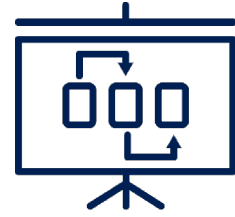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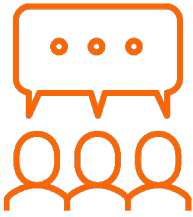
지역별 수요와 재정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 확대

02.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이란?

기초 단위 지역(시,군,구)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 활성화 하는 거점을 말합니다.



03. 핵심역할



지역 내 협력망 구축을 통해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모델 도출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시범운영
2개년 계획 수립·제출

04. 주요기능

※ 기초 거점의 기능에 대한 장기적 연계성이 드러나도록 설정 필요



자원발굴, 축적, 매개

기초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현황을 조사 발굴하며,
자원 간 점점 파악·매개

자원의 성장-지원

지역 내 주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인력양성, 컨설팅·평가,
인프라 조성 등)



지역특화 협력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수요를 기반으로 한 선도적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주체에 확산·보급

문화예술교육 인식확산 홍보

지역 내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를 통한 자원간 연계
및 주민 접근성 촉진



05. 운영원리

- 협력망 구축을 통한** 지역 내 주체 간 협력망 구축으로 문화예술교육 현황·수요 파악, 추진방향 설정·실행 등 전 과정에서 소통·협력
- 면밀한 지역 분석을 토대로** 중앙·광역 단위에서 파악 어려운 지역 여건, 문화예술교육 현황, 세분화된 욕구·수요 등의 지속적·심층적 조사·분석
-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기획으로** 개별 단체·개인 욕구에 기반한 기획에서 벗어나, 기초 단위 지역의 자원·수요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기획과 설계
- 주체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시설 공간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주체 발굴·성장 지원, 프로그램 연계
- 다양한 자원을 엮어내는** 지역 내 분절적인 인적·물적 자원 간 접점을 도출, 연계·교류토록 함으로써 주민 일상의 문화예술교육 접촉면 확대



06. 단계별 추진내용(안) ※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 지역의 상황에 맞게 추진내용 설정 가능함



추진주체 구성

지역현황 분석

지역 문화예술교육
방향/목표 설정

장기 로드맵 및
단계별 계획수립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마련

현황 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한
1차적 방향 설정

지역 문화예술교육
방향 조정, 공동기능
내 우선순위 설정 및
추가기능 설정

장기적 로드맵 수립
및 연차별, 단계별
계획 수립

추진주체 구성



거점 구축 추진단 구성

공모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후 실행을 위한 조직 구성
(코디네이터, 행정 담당자, 매니저 등)

※ 지역 여건, 참여 주체(지자체, 문화재단 등) 성격에 따라 유동적임

워킹그룹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준비를 함께 추진할 핵심 주체 발굴·구성

(TF 형태의 다양한 분야 관계자 구성 등)



지역협의체 구성

정책·행정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식적·비공식적 협의체 구성

(기초지자체 및 광역센터 등 핵심 협력주체와
타 분야 기관 등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구성)

지역현황분석



현황 분석 및 방향 설정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수요·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향후 활성화
방향 설정



데이터 수집

온오프라인 문서조사,
방문조사, 유관기관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현황 데이터 확보



관계자 의견 수렴

그룹 인터뷰, 라운드 테이블
등 다양한 주체와 논의하여
지역 내 수요 및 역할 등
의견수렴

지역 내 공론화 및 계획 수립



공론화 추진

지역 현황 분석 과정에서 설정된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향에 대한
본격적, 심층적 논의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뿐만 아니라,
유관·타 영역 관계자를 포괄하여 주체·영역별
다양한 방식의 소통채널 작동



시범사업 실행

인력양성, 연구, 지역 특화 콘텐츠 생산 등
다양한 방식의 시범사업 실행

※ 단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 사업 지양



협약에 기반한 계획 수립

지역 내 다양한 주체와의 다각적·지속적 소통을 통해
장·단기적 추진방향 및 목표 도출

※ 장기적인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큰 그림을 제시하되, 예비지원(20년)
및 시범운영(21~22년) 단계별 추진방향 및 내용 제시



협력체계

핵심 협력주체

기초거점을 중심으로 기초지자체, 문화예술분야 주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예술인 및 예술단체, 문화기관,
문화기반시설, 생활문화시설 등)

기타 주요 협력주체

타 분야(교육, 사회복지, 국토교통/농림, 행정안전 분야 등) 주요주체
(학교, 평생교육기관, 복지시설, 주민자치시설 등)



협력내용



기획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 수요, 현황 파악
- 문화예술교육 과다·중복·부족 영역 등을 진단·조정하여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 작성
- 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원 확보, 공유 방안 협의



자원

인적자원	공간자원
시설과 지역 내 문화 예술단체, 예술 강사, 예술인 연결	가용공간(문화예술 교육 전용공간, 문화 기반시설, 생활문화 시설 등) 연결
물적자원	정보
중앙 정부나 광역 지자체의 사업과 연계 하거나 지역의 자체적 인 자원 지원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문화예술주체 간 경험·정보의 원활한 소통과 공유



교육 대상

지역 내 교육·복지·자치시설을 통한 홍보 및 교육 참여자 모집



공동 교육·사업

예술강사, 단체, 예술인, 문화시설과 함께 공동사업, 프로젝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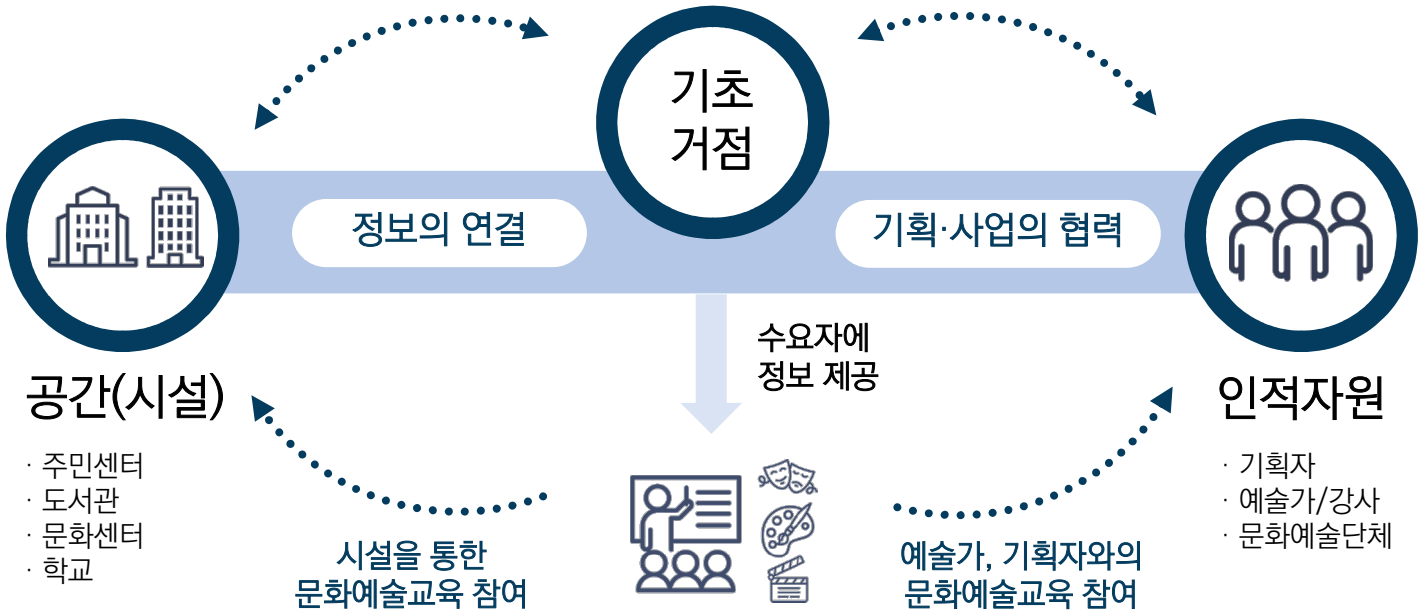
협력방식

기초문화예술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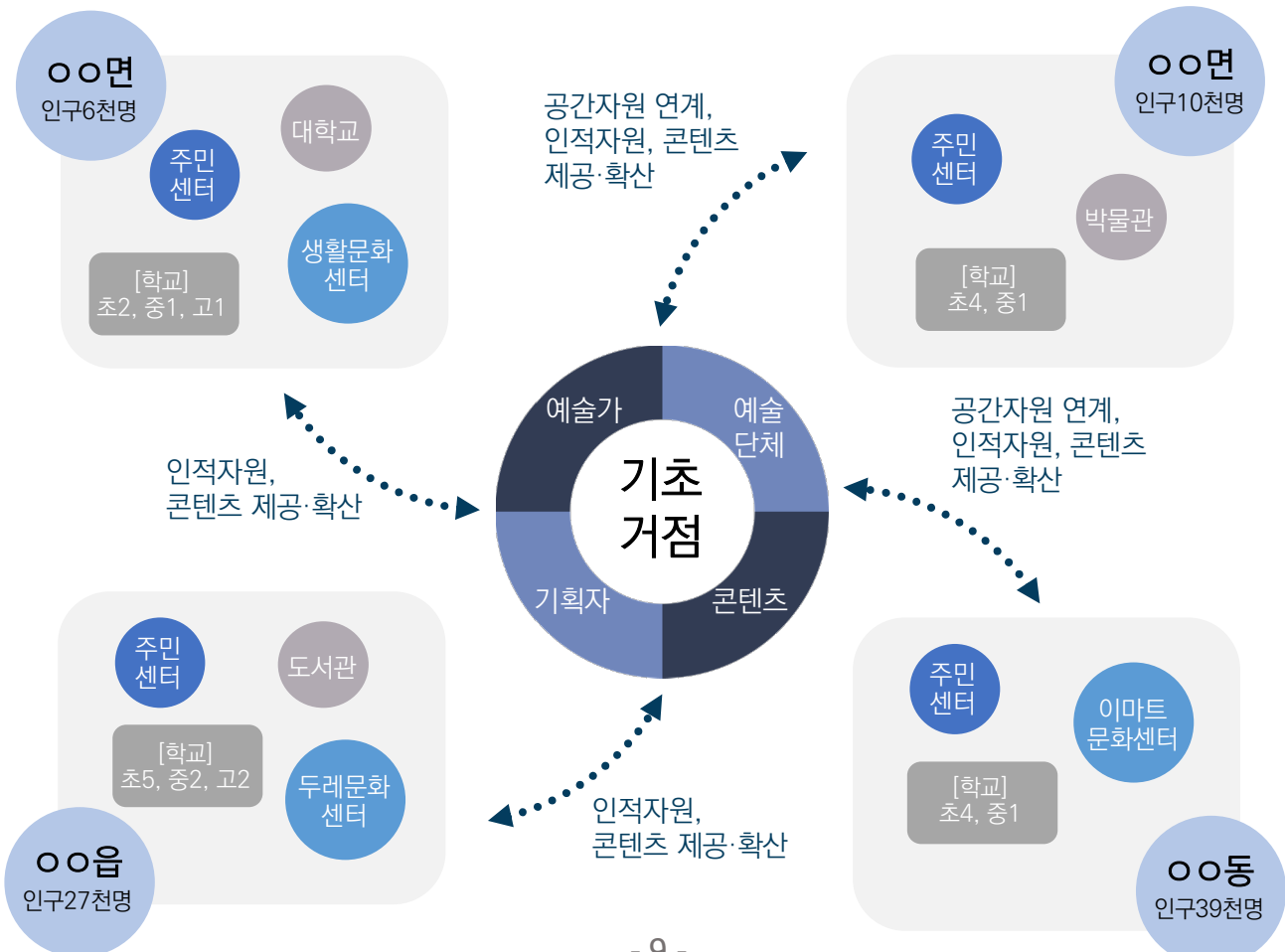
기초문화예술교육협의회	기초지자체, 거점주체, 문화기관, 문화기반시설, 생활문화시설,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예술강사, 예술인 등(분기별 공식 회의/필요시 수시 회의)
워킹그룹(working group)	주요 의제, 협력에 필요한 사항 상시적 논의
중앙/광역 파트너/타 분야 주요 파트너	필요 시 중앙/광역 파트너(지역문화협력위원회, 광역지자체), 타 분야 주요 파트너(사회복지협의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초청, 공동 이슈 대응

상시적 협력 : 워킹그룹, 학습공동체(CoP),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

생활권 단위에서의
공간(시설)자원 - 인력자원 - 수요자 간 연결체계



기초지자체 "K시"의 지역 자원 간 연계 작동방식



사업 관련 Q&A

01. 사업 개념 관련

(Q) 이 사업은 왜 필요한가요?

(A) 지금까지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는 지역별로 각기 다른 환경이나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사업을 고민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유형과 대상/방식 등이 정해져 있어서, 각 지역에서 자율성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사업들을 기획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들을 직접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Q) ‘거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보통 ‘거점’이라고 하면 대부분 공간적인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업에서는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사업 실행의 ‘주체’로서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 안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이나 자원을 기획하여 엮어내고 촉진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 내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협력의 구조를 만드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A) ‘지역에 맞춘다’라는 것은 지역을 이해하는 과정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출발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재인식’하고, ‘상황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한 상상력, 즉 기초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먼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맞춤 문화예술교육의 실행을 위해서는 개인이나 일부 그룹을 넘어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획하고 각자의 현장에서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함께 진단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생각해보고, 지역의 자원을 연계해 나가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합의하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2. 거점의 역할 관련

(Q) 기존에 권역 별로 존재하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 현재 광역단위로 총 17개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광범위한 광역시·도 전체의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수요를 모두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단위의 지역마다 문화예술교육 거점이 마련되면, 광역 단위에서 펼치기 어려웠던 면밀한 문화예술교육 현황이나 수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환경에 맞춘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광역센터에서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보편성을 띠는 문화예술교육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기초 단위 지역에서의 특성들을 반영한 정책을 설계하고 조율해가면서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균형 있는 문화예술교육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균형 있는 역할을 완성하기 위해 중앙에서 염두하고 있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A) ‘지역화’에 대한 정부의 계획에서는 기초 단위의 역할에 대해서 고정화하거나 특정하여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지역에서 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열어주고자 하고 있는데요. 지역이 협력을 통해 지역의 이슈를 읽어내고,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활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각자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상당 부분을 기초 단위에서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과도기를 거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광역과 기초 단위의 역할을 분배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광역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가진 기초센터들 간의 격차를 조정·완화하는 역할을 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Q) 계획수립 가이드 내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기능 4가지가 거점의 역할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A) 계획수립 가이드에 제시되어있는 기능들은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려할만한 기능들을 공통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가지 기능을 모두 담기 위해서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수행할 기능들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설정한 기초 거점의 기능에 대한 장기적 연계성이 드러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면밀한 지역현황 분석 및 다양한 주체 간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문화예술교육 추진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해서 설정된 방향에 근거하여 연차별 중점 추진 기능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02. 거점의 역할 관련

(Q) 현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유사 영역(마을공동체, 생활문화, 도시재생 등)과 어떤 연계지점 혹은 차별점을 가져가야 할까요?

(A) 이미 지역별로 마을공동체나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기초 단위의 사업과 모임들이 펼쳐지고 있을 텐데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람과, 공간, 프로그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면서, 하나의 공통된 관점들을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점이 구별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형태나 구조는 유사할지라도, 그 안에서 진행하는 활동의 목적 안에 문화예술교육적 요소를 얼마나 고민하여 반영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03. 공모 요건 관련

(Q) 기초 거점 공모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나요?

(A) 올해 기초거점 공모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참여주체의 구성원 중 최소 1명이 해당 기초지자체 내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어야 하며(거주 혹은 활동관련 증빙자료 필수 제출 필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참여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향후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위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올해 사업을 지원할 때, 몇가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건들도 있습니다.

먼저 기초센터를 운영하게 될 경우 지방비 매칭(1:1)에 대한 협약이 필수적인데요. 따라서, 올해 사업 참여 전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지원주체-지자체 간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기초센터 역할 이행 시 '공간'이 의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 행정사무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리적인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이번 사업에서는 총 8억 정도의 규모로 12개소 내외의 거점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거점 별로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의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별 정확한 지원 규모는 심사 때 최종 거점을 선정하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산계획 구성 시에는, 각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장기적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대략적인 항목을 생각해보면, 추진주체에 대한 인건비, 회의나 워크숍·간담회 등을 위한 전문가활용비, 간담회비 등을 포함하여 시범 프로그램 운영이나 연구 활동을 위한 비용 등이 있겠습니다.

단, 일시적 행사를 위한 장소 임차가 아닌, 사무실 등 일상적으로 필요한 장소에 대한 임차비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

03. 공모 요건 관련

(Q)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이번 사업에서는 크게 ‘사업 필요성 및 의지’, ‘내용의 적합성’, ‘계획의 구체성’, ‘지역 내 거버넌스 가능성’을 심사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① 사업 필요성 및 의지 : 우선적으로 지원주체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그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지를 확인합니다. 관련하여, 앞서 안내드렸듯이 신청 시 기초지자체와의 ‘협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거점이 지역 내 협력망 형성을 통해 작동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지자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는 사업 추진이 잘 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잘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② 내용의 적합성 : 더불어,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역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계획 안에 해당 지역의 장기적 계획을 도출함에 있어서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분석이 문화예술교육적인 해석을 통해 접점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③ 계획의 구체성 : 또한, 사업계획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예산계획의 적절성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제시하고 있는 계획들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의 인력구성이나 공간, 예산 등의 자원 조달 계획 등이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④ 지역 내 거버넌스 가능성 : 끝으로, 지역 내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현재 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긴밀하게 작동하고 있는지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형성할 예정이라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주체들과의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형성된 거버넌스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모든 단계마다 활발히 작동될 수 있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역의 환경을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핵심기능을 설정하고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과정이 소수의 단일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버넌스가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하겠지요.

04. 신청서 양식 관련

(Q) 협의체 운영 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협의체 운영계획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실행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논의의 과정을 거칠 것인지, 혹은 어떠한 협력 주체를 형성하고자 하는지를 보기 위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실행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 어떤 전문가 혹은 단체를 만나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담거나, 추후 장기적인 지역계획 수립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주체를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한 계획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Q) 공간 활용계획이 뭔가요?

(A) 사업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주로 시범 사업 운영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를 위한 물리적 공간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릴레이 토론회를 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를 위한 장소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겠지요. 다시 말하면, 공간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계획하신 활동들이 무리 없이 벌어질 수 있는 정도의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거점 구축 지원 사업비 내에는 일상적 공간 임차를 위한 예산 활용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장기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올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2021년 기초센터로 시범운영을 하게 될 경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간 확보가 필수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2020년도에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특별히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기초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든, 사무 공간이든 최소한의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공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0년 사업 기간 동안이라도 유관기관이나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공간 요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Q) 예산집행 계획 시, 항목별 필수 비율(‘인건비 00% 이하’ 등)이 있을까요?

(A)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산 항목 등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항목 간의 범위를 설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계획의 내용과 예산 활용계획 간의 연계성을 검토하게 되므로, 상호 연관성이 보여질 수 있도록 타당한 범위 내에서의 예산 책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전문가활용비나 간담회비 등 세부 항목의 편성 시에는 별도 붙임파일로 첨부되어있는 예산 집행지침(2020년 간접보조자 예산집행지침 기준)을 참고하여 구성하실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포함해두었습니다.

05. 협력 관련

(Q) 지자체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로 형성해야 할까요?

(A) 사업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획수립 단계에서 분석한 지역별 현황에 따라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유형이나 대상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이후 기초센터로서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매칭(1:1)’이 필수 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 활용에 대한 협의도 사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지원주체-지자체 간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있구요. 지원주체 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그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지를 심사 기준으로 확인할 예정이므로, 앞으로의 사업 운영에 대한 목표를 공유하고 의지를 다지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Q) 협력방식에 대해 정해진 매뉴얼이 있을까요?

(A) 지역마다 활동하고 있는 주체가 다르고, 다양한 주체가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있는 방식도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해야 할지에 대한 정해진 매뉴얼이 존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협력의 범위나 유형, 일부 방식에 대해 <계획수립 가이드>에 첨부된 참고자료에 일부 방향이 정리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우선 지역 안에 어떠한 자원과 주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과의 협력구조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의 현황이나 수요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 내의 장기적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과정 전반에 있어서, 지역 안에서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이들과의 논의나 협력구조가 필수 전제가 되어야 하고, 또 그래야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시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 제한된 여건 안에서 협력의 주체를 핵심그룹과 기타그룹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지역 스스로의 전략에 따라 핵심 협의체나 워킹그룹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학습공동체라든지 온라인 소통채널을 동시에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에 각 주체별로 수행할 역할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분배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문제해결에 있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임무를 상기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활동과 공동의 활동에 시너지를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협력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역 안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함께 도출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예산과 인력, 자원 등을 공유하는 공식적 파트너십과 시기마다 주어지는 정책과 활동과제에 조직과 예산을 유연하게 작동시킴으로써 지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가치를 높이는 협의의 거버넌스를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05. 협력 관련

(Q) 협의체 구성 시에, 예술강사 등 전문인력이 아닌, 주민(귀농 활동가 등)과의 협의체 구성도 가능한가요?

(A) 협의체 구성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추진단, 워킹그룹, 지역 협의체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구성원의 역할과 성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06. 사업 진행일정 관련

(Q) 기초 거점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어떤 단계로 사업이 진행될까요?

(A) 실질적으로 각 거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은 6월부터 12월 정도까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구체적인 단계를 살펴보자면, 우선 6월 중 공모 심사가 끝나면 사업비 교부가 이뤄지고 계획을 실행해 나가게 됩니다. 또한, 중간 중간 컨설팅(2회 내외) 및 관계자워크숍(3회 내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12월까지 거점별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보완·실행해나가고, 그 이후 한 해 동안의 결과물을 정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결과물을 기반으로 기초센터로서 시범 운영할 주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Q) 컨설팅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A) 진흥원에서 중앙 차원의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 협력에 대한 부분이나, 지역 현황 및 특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의 설계, 지속가능성 등 주요한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선정이 되신 이후에 서로 간에 논의를 통해서 컨설팅의 수요와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Q) 올해 이후 사업에 대한 지원은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나요?

(A) 2020년 사업에 참여하시게 될 경우, 사업 종료 시점에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 향후 2년간의 기초센터 운영을 위한 해당 기초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후 2년간 기초센터로서 실제로 시범운영을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 올해 사업에 선정되셔서 사업수행 이후 계획서를 제출하신다면, 기초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가지게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2년간의 기초센터 시범운영 동안에는 2023년 기초센터로의 지정을 목표로 두고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참고 자료

○ 참고 링크

- 2019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 관련

<http://arte365.kr/?p=72576>

http://lib.arte.or.kr/researchdata/board/ArchiveData_BoardView.do?board_id=BRD_ID0045983

- 2019 기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집담회 관련

<http://arte365.kr/?p=76639>

- 2019 지역문화예술교육 계획 분석 연구

http://lib.arte.or.kr/researchdata/board/ArchiveData_BoardView.do?board_id=BRD_ID0046978

- 2018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http://lib.arte.or.kr/researchdata/board/ArchiveData_BoardView.do?board_id=BRD_ID004551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